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관장 한갑수)이 한국전력 임실지사(지사장 김한선)와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월동준비를 돕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력 임실지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 임실지사 임직원 및 대한적십자사 임실군지부 관촌봉사단, 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1,000kg 김장김치를 직접 담아 지역사회에 온정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실군북부권 마을이장단 협의체와 복지관 사제관리팀이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갑수 관장은 "이번 김장나눔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전력 임실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 소외 받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

원불교 송학교당, 송천1동·2동에 기탁

원불교 송학교당(주임교무 김덕진)에서 겨울철을 맞이하여 25일 송천1동 주민센터(동장 김주찬)와 송천2동 주민센터(동장 정대선)에 각각 200만 원 상당의 겨울이불을 전달했다.



원불교 송학교당은 해마다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 후원을 꾸준히 해 온 기관으로, 이번 선행을 드러내지 않게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데 모범을 보였다.

이번 겨울이불 전달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원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원불교도들이 십시일반 준비하였

다. 기탁받은 겨울이불은 송천동과 송천2동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세대, 홀로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덕진 주임교무는 "겨울이불 전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웃을 위한 후원 사업들을 더 확대하여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찬 송천동장은 "송학교당의 따뜻한 정성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것이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준 송학교당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장학수 입시생·직원, 선별진료소에 선물 전달

전북도전주장학수(관장 김귀자)는 입시생 및 직원이 함께 준비한 감사편지(손편지 및 롤링페이퍼) 및 응원선물(화백, 피로회복제, 굴 등)을 전주시 무료 선별진료소 2곳(덕진,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로 팍팍하며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활동을 추진한 채정수(자율회 회장) 입시생은 "보이지 않는 의료진분들의 희생이 있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로 선별진료소 의료진분들에게 손편지 및 응원선물을 전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눔과 좋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호성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협,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 협의회(회장 황인두)는 25일 덕진동 종합경기장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김치 1000여 포기를 지역의 한부모 가정,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황인두 회장은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전주시와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나눔 활동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 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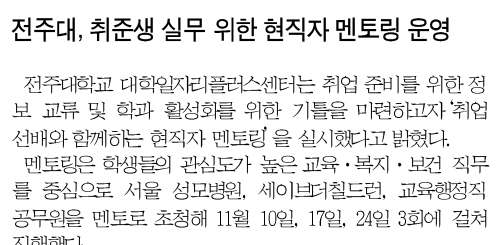
여의동·자생단체, 취약계층 김장 2000포기 전달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동장 한중희)는 25일 봉우회 등 9개 자생단체들과 함께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생단체 회원 100여명은 5톤에 달하는 배추와 양념을 버무려, 2000포기의 김치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 100여 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김장행사는 20개 기관·단체가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한 홀로어르신은 "물해는 배추값도 비싸고 물가가 많이 올라 김장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취업생 실무 위한 현직자 멘토링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 교류 및 학과 활성화를 위한 기쁨을 마련하고자 취업 선배와 함께하는 현직자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멘토링은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교육·복지·보건 직무를 중심으로 서울 성모병원, 세이브더칠드런,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멘토로 초청해 11월 10일, 17일, 24일 3회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24일에 이뤄진 교육행정 공무원 멘토링은 100여 명의 학생과 온라인 실시간 플랫폼을 통해 진행, 참여 학생에게는 졸업장 선배의 ▲기업 및 직무 소개 ▲입시지원서 및 면접전략 ▲산베어의 Q&A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취업계획 수립할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멘토링에 참여한 한 재학생은 "현장에 있는 선배님의 현실적인 조언으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었고 취업 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홍성덕 센터장은 "직무 멘토링은 학과 선배들 간 멘토링을 통해 직무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취업 비결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 10월 도내 대학 중 최초로 고용노동부 대학창업일자리센터를 개소한 이래 전주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을 위한 질 높은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주중고서 지역사회연계 재능나눔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문용규)는 25일 전주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기회와 실질적인 진로선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공기술 재능 나눔'을 실천했다.

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전공 직무역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로, 비전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한 재능나눔으로 네트워크를 넓혀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과 2학년 추천호 학생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전공직무지식도 한번 더 되짚어 볼 수 있었고 사회공헌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전공실무능력 끌어 올리기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순정 원격평생교육원 원장은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재능나눔의 좋은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문용규)에는 신재생에너지과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정은성 기자



삼천2동 자생단체,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대선) 등 자생단체는 24일 주민센터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주민자치위는 이른 새벽부터 집합배추 500포기와 무, 양념을 직접 준비해 김장을 했다.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200가구에(10kg 기준) 당일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강대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가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진숙 삼천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눔 김장김치 행사에 참여해 상생과 화합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택수 이사장, 전북대 장학금 5000만원 기부

(재)경초장학재단(이사장 김택수)이 전북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초장학재단은 초대 회장 김택수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호인 경초를 따 설립된 재단이다. (유호남)속 임원들이 뜻을 모아 회사의 이익금을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출연해 설립했다.

그간 도내 고교생과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온 재단은 이번에 지역 대표 대학인 전북대에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쌓고자 기금을 마련했다.



이에 전북대는 25일 김택수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김동원 총장은 김택수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기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부된 장학금은 '경초장학재단 장학금'으로 명명해 9명의 장학생을 선발 이날 기증식 이후 장학금 전달식 이어졌다.

김택수 이사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성장한다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 대학과 도박문제 예방 나서

전북도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이희정)가 전북권 대학들과 연계해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주비전대와 예수대, 원광보건대, 한일장신대 등과 연합해 각 대학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온 센터는 지난 24일 우석대 학생상담센터와 함께 우석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퀴즈와 '도박은 멀리, 문제는 함께'라는 문구의 관베스티커 참여 등을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도박문제 선별검사(지면, QR코드)에 순차적으로 참여한 대학생과 교직원에게 홍보품물을 전달했다.

이희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대학 내 각 상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찾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중앙동, '로템힐의원' 착한의원 현판 전달

전주시 중앙동 주민센터(동장 최훈석)는 25일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호정)와 함께 중앙동 착한가게 17호점으로 '로템힐의원'을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전주시 보건소 거리에 있는 로템힐의원은 신경, 우울, 불면, 치매 등 정신건강의학과외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근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착한가게라는 캠페인을 알게 되었는데,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훈석 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의 나눔을 해준 이상근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내 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중앙동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우체국, 저소득층대상 300만원 후원

남원시는 25일 남원우체국(국장 백민숙)이 관내 취약계층 2500명을 대상으로 KF-94마스크 1만5,000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은 202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해 및 상해 사고 대비를 위한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번 후원된 마스크는 대상자 2,500명에게 사업안내문 발송과 함께 각 6매씩 제공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날 기탁사에서 "남원우체국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행해 주고 계시는데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까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방역을 위한 필수품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